



01. 이달의 정책

국가 금연정책을 저해하기 위한 담배업계의 전략

INFOGRAPHIC No.37 담배업계의 저해 활동으로부터 정책을 보호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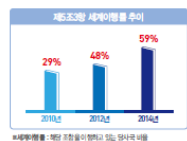
1 FCTC 제5조3항 및 가이드라인

2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 전략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3항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가독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해야 한다.



제5조3항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담배 유통성 및 담배업계 저해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담배업계의 제한적 교류 및 투명성 확보
담배업계의 파트너십 거부	정부관계자 및 공무원과의 이해충돌 방지
담배업계의 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정확성 확보	담배업계의 소위 '사회공헌활동' 규제
담배업계에 특혜 미제공	국가 소유의 담배업계의 경우, 기타 담배업계의 동일하게 취급

로비활동을 통한 정책 입안 저지
미국 담배업계, 로비활동에
연 246억 원 지출 (\$ 2,200만)

위장단체(Front Group)를 이용한 반대 여론 조성
호주 담배업계, 규격화 무효(광고모집 도입 금지)를 위한 위장단체 (Alliance of Australian Retailers, AAR)를 조직하여
연 56억 원 후원 (\$ 5백만)

법적 제소를 통한 정책 시행 지연 및 방해
다국적 담배회사, 우루과이 규격화 (유통)광고모집 제정을 위한 소송에
최소 약 78억 원 지출 (\$ 700백만)

정책의 예측 효과 및 관련 분야 연구 결과 오도
영국 담배업계, 경제분야 정책연구소 (The Adam Smith Institute) 등에
연 6,400만 원 후원 (£ 4만 4,000)

소위 사회공헌활동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통한 마케팅
미국 담배업계, 흡연의 선택권 및 책임이 청소년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흡연제한 캠페인에
연 23억 원 지출 (\$ 210만)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 전략
Interference by the Tobacco Industry

1. 서론

세계 각국이 담뱃세 인상, 금연구역 지정, 담뱃갑 포장 규제 등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담배업계다. 그들은 막대한 규모의 비용을 결코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 교묘하게 세워진 다양한 전략으로 국가 금연정책을 저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규제 정책을 담배업계의 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 5조 3항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는 담배업계가 각국 정부의 담배사용 폐해 근절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을 수년간 써 왔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전문에서도 협약 당사국들에게 담배규제 노력을 저해하거나 전복시키려는 담배업계의 활동에 주의하고 담배규제 추진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담배업계의 행태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협약 제5조3항은 담배규제와 관련된 공공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서 협약 당사국이 자국 법에 따라 해당 정책을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 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이 정식 발효된 지 3년 후인 2008년 WHO FCTC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담배업계의 상업 및 기타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관련 공공보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제5조3항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5.3 of the WHO FCTC)은 담배업계의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정책적 권고 사항을 담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은 담배규제 관련 공공보건 정책에 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정부부처 및 기관에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먼저, 협약 제5조3항 이행 가이드라인은 해당 조항의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협약 제5조 3항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Guiding Principles)

원칙 1. 담배업계의 이익과 공공보건 정책의 이익 간에는 근본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

원칙 2. 당사국은 담배업계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를 상대할 경우 책임 있고 투명해야 한다.

원칙 3. 당사국은 담배업계와 담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운영 및 활동을 하는 자에게 책임 및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원칙 4. 담배업계의 제품은 치명적이므로 담배업계의 설립 또는 운영상에 어떠한 특혜도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4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은 모든 정부부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8가지 세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고사항(Recommendations)

1. 담배제품의 중독성 및 위해성과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을 저해하는 담배업계의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2. 담배업계와의 제한적 상호교류 조치를 수립하고 상호교류 시 투명성 확보
3. 담배업계와의 파트너십, 비구속력 또는 비강제성 협정 체결 거부
4. 정부 관리자 및 공무원과의 이해충돌 방지
5. 담배업계가 제공한 정보의 투명성 및 정확성 요구
6. 담배업계의 '사회적 책임'으로 표현되는 활동의 비정상화 및 가능하다면 이를 규제. 여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표현되는 활동도 포함
7. 담배업계에게 특혜 미제공
8. 국가 소유의 담배업계를 모든 기타 담배업계와 동일하게 취급

WHO FCTC 제5조3항의 세계이행현황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년마다 실시되는 FCTC 이행보고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169개 당사국 가운데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가의 비율이 29.0%에서 59.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는 담배업계의 담배규제 정책 저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응답한 당사국이 총 100개국으로 전차 보고 대비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였다.**

3. 담배업계의 국가 금연정책 저해 전략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 활동은 대표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전략**으로 설명되고 있다.

1) 로비활동을 통한 정책 입안 저지

담배업계는 담배규제 관련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및 입법절차에 개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책 결정 관련 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담배산업에 유리한 보고서 또는 선물·향응을 제공하는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단순히 정책이 담배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인사와 강력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정책결정과정에 긴밀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별 매출에 로비활동이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배산업은 방위산업과 의료·제약산업에 뒤이어 세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산업으로 꼽혔으며, 미국 담배업계가 2014년에 로비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약 2,200만 달러(약 2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채택된 유럽연합(EU)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2014/40/EU))은 EU 역사상 가장 많은 로비 대상이 된 법으로 거론될 만큼 입법 절차 과정에서 담배업계의 로비 활동이 활발했다. 대표적으로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Philip Morris)는 해당 법안의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160명 이상의 로비스트를 고용했으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1/3 이상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에서 애초에 포함됐던 규격화 무(無)광고포장(plain packaging)과 판매점 담배진열 금지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법안의 전반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입법 절차가 진행될수록 규제 수준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위장단체(Front Group)를 이용한 반대여론 조성

담배업계가 흡연을 옹호하고 담배규제 정책에 반하는 논리를 직접 발언할 경우에는 미디어나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업계는 제3의 조직, 일명 **위장단체(Front Group)**를 앞세운다. 위장단체란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입장임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담배업계의 후원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담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말한다. 2011년 4월 호주 정부의 규격화 무광고포장 도입 법안이 완성된 후, 담배업계는 해당 법안이 당해 11월 상원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그 중 대표적으로 사용된 전략이 바로 위장단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호주 담배회사들은 이미 존재하는 호주소매상연합(Australian Retailer Association, ARA)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Alliance of Australian Retailers(이하 AAR)'를 조직했다. AAR은 담배업계와 연계된 사실을 숨기고 규격화 무광고포장이 도입된 후 소매상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정책 반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이후 일부 유출된 내부분견에 의해 AAR이 담배업계로부터 약 5백만 달러(약 56억 원)의 재정 후원을 받은 담배업계의 위장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후 AAR은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3) 소위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통한 마케팅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공익사업, 기부협찬,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 구성원의 복지 및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TV, 라디오, 인쇄물 등을 이용한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배업계는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담배업계는 이른바 **CSR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담배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WHO가 담배업계의 CSR을 “내재적 모순(inherent contradiction)”**이라고 지칭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활동의 문제점은 담배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화시킴으로써 담배나 담배회사에 대한 거부감 및 비판적 인식을 감소시켜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을 흡연으로 유도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5개 담배회사가 2013년 한 해에만 약 210만 달러(약 23억 원)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진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은 담배업계가 펼치는 대표적인 CSR로 꼽힌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이미 흡연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흡연의 폐해에 대한 책임이 담배회사가 아닌 흡연 행위의 선택권을 가진 청소년 본인과 그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고도의 전략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4) 정책의 예측 효과 및 관련 분야 연구 결과 오도

담배업계는 과학적 사실과 근거를 부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흡연 이외에 더 위험한 건강 위해요인이 존재함을 강조하면서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특히, 담배업계는 간접흡연과 흡연의 유해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부인해왔으며, 국제적 연구조직을 구성해 각종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다른 요인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내부분건에 의해 담배업계 역시 자체적으로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대대적인 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위험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담배업계는 국가 담배규제 정책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을 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2011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 개정안에 대해 대표적인 경제분야 정책연구소인 아담스미스연구소(Adam Smith Institute)는 소매상들에게 수천 파운드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담배업계가 아담스미스연구소 및 경제연구소에(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에 약 4만 4000파운드(약 6400만원)를 후원한 사실이 미디어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해당 연구소들은 담배규제 정책을 자유에 대한 지나친 통제라는 논리로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5) 법적 제소를 통한 정책 시행 지연 및 방해

담배회사는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2011년 규격화 무광고포장이 호주 상원의회를 통과한 후, 담배업계는 호주 정부가 자사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호주 헌법과 초국경 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4. 담배업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담배업계와 정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교류가 있을 시 해당 내용을 모두 대중에게 공개토록 조치하는 국가들>

① 호주

호주의 경우, 보건부와 담배업계가 관련 규제 또는 정책과 관련하여 교류한 모든 내용이 보건부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호주는 보건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부처가 로비스트의 활동에 대하여 투명하게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로비스트는 정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합법적 활동이 가능하며, 로비에 관한 행동강령(Lobbying Code of Conduct)에 따라 정부 관계자가 로비스트와 교류한 모든 사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② 영국

담배업계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교류를 할 경우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11년에 발표된 담배규제계획(Healthy Lives, Healthy People: A tobacco control plan for England)에서는 정부부처와 담배업계 간에 이루어진 정책 관련 회의내용 전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같이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을 발간하였는데, 해외 파견공무원들이 담배업계의 저해 활동으로부터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기피해야 하는 행동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담배 또는 담배 관련 제품의 판매나 판촉 관련 행사 관여,

담배업계와의 투자 권장, 담배업계로부터 직·간접적 재정 지원 수락, 담배업계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프로젝트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 활동 규제를 위해 FCTC 제5조3항의 내용을 직접 국내법 또는 정책에 언급하여 이행을 촉진하는 국가들〉

① 브라질

브라질의 경우, 18명의 정부부처 장관 및 기관장으로 이루어진 **WHO FCTC 이행 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WHO FCTC Implementation, CONICQ)**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부 장관이 FCTC 제5조3항을 근거로 하여 위원회 활동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수행되도록 하는 윤리 지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WHO FCTC 이행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담배업계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담배업계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며 참석비용을 정부에서 일체 부담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② 멕시코

담배업계와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 및 교류에 대하여 협약 제5조3항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국법 하에 보장되어 있는 정보에의 권리(right to information)에 따라 누구나 연방정부에게 담배업계와 정부부처간의 교류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담배업계와 공무원의 교류활동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

① 필리핀

보건부와 공무원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에서 **담배업계 저해 활동으로부터 관료제 보호에 관한 공동 각서(Joint Memorandum Circular on Protection of the Bureaucracy against Tobacco Industry Interference)**를 발표하였으며 담배업계의 이익으로부터 공공보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② 태국

보건부 역시 부처 공무원이 담배규제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의 과정에서 담배업계 및 관련 인물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담배업계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있는 조직까지 담배규제 관련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공무원이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담배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담배업계가 정책 또는 사업 관련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단체로 해석이 되어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 담배규제 정책,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마땅하다

담배업계가 국가의 금연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지연시키며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쇄신 노력에 적지 않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회사의 상업적 이익을 존속시키기 위함이다. 경제적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도한 규제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비추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건강이고, 우리가 규제하려는 대상은 공공보건 제1의 위험요소로 꼽히는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담배업계이다.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수적이고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실효성 있는 담배규제 정책의 시행이며, 이를 위해서는 담배업계의 전략적인 저해 활동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 담배업계의 저해 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인적 및 재정 자원이 투입되더라도 의미 있는 정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합법적 영업행위라고 주장하는 담배업계의 다양한 활동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치고 보다 엄중한 잣대를 대야 하는 이유이다.

※ 출처 : 월간금연이슈리포트_vol.37_August_2016

링크 : http://www.khealth.or.kr/PublishBoard.do?bid=64&mid=359&cmd=_view&dept=&bns=7&idx=9322

02. 이달의 연구

국내 청소년의 과거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현재 흡연유무와의 관련성에 관한 리뷰

본 원고는 다음 논문을 리뷰하였습니다.

[‘국내 청소년의 과거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현재 흡연유무와의 관련성 [2013]’ / 김이경, 이성규, 이향기, 지선하 / 보건사회연구 제33권 제4호]

1. 연구배경

- 청소년기 효과적인 흡연예방은 향후 성인 흡연을 감소를 위한 중요한 보건과제이다.
- 국내 청소년 흡연율은 2011 년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2). 하지만 흡연 시작 연령이 2012 년 현재 12.6 세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2) 청소년 흡연예방에 관한 효과적인 개입이 시급하다.
-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 인기영화 속 흡연장면은 흡연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흡연에 대한 친근감까지 형성할 수 있어 흡연장면에 노출되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해 흡연 가능성이 높다.
- 도출된 결과는 향후 청소년 관람가능 영화 속 흡연장면에 대해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데이터

서울 소재 일부 고등학교와 서울,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대학교의 재학생들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였다. 조사기간은 2012 년 3 월 5 일부터 22 일까지였고, 응답률은 95.6%였다.

2) 주요변수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횟수는 2005~2006 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에 의뢰하여 실시한 ‘한국 영화 흡연장면 모니터링 조사’의 결과를 사용했다.

주연이나 조연배우가 흡연하거나 흡연배경이 있는 경우를 “흡연장면”으로 정의 했고, 흡연장면의 지속시간은 별도로 차별을 두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전체 70 편의 영화에 대해서 관람유무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영화 관람 유무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도록 설문지에는 70 편의 영화에 대한 공식 포스터를 이미지로 제공했고, 해당 영화의 주연배우 이름을 함께 제공했다. 연구 대상자가 관람했다고 응답한 영화의 흡연장면 횟수를 모두 합쳐서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를 계산했다.

현재 흡연여부에 대한 정의는 세계청소년 흡연율 조사(Global Youth Tobacco Survey, GYTS)의 흡연 설문문항을 인용하여 '최근 30 일 동안, 하루에 평균 몇 개비의 담배를 피웠습니까?'의 질문에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현재 비흡연자'로, 그리고 0.5~1 개비, 2~5 개비, 6~10 개비, 11~20 개비, 21 개비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현재 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현재 흡연행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흡연행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위험요인을 통제하였다. 통제변수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거주지, 학년, 학교종류)과 흡연행태 관련요인인 과거 흡연 유무, 부모 흡연 유무, 친구 흡연 유무, 친구 흡연 권유 시 대응 태도, 학교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참여 유무, 담배제품 브랜드가 새겨진 물품 소지 유무였다. 과거 흡연 유무는 과거에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적이 있는 경우를 과거 흡연자로 분류하였다(Sargent et al, 1998). 부모 흡연 유무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피우지 않음, 둘 중 한 명 또는 둘 다 피우는 경우로 측정하였으며, 친구 흡연 유무는 전혀 없음, 일부 있음(거의 대부분, 모두 포함)으로 측정하였다.

3) 분석

본 연구는 기술통계, 카이스퀘어 검정(x2-test), 독립표본 t 검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05 였다. 분석을 위해서 PASW Statistics 18 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1,075명 중 남학생이 57.5%(618명), 여학생이 42.5%(457명)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조사대상 학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87.8%(944명)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순이었다. 대상자의 학년 고등학생이 10.4%(112명), 대학생이 89.6%(963명)였다.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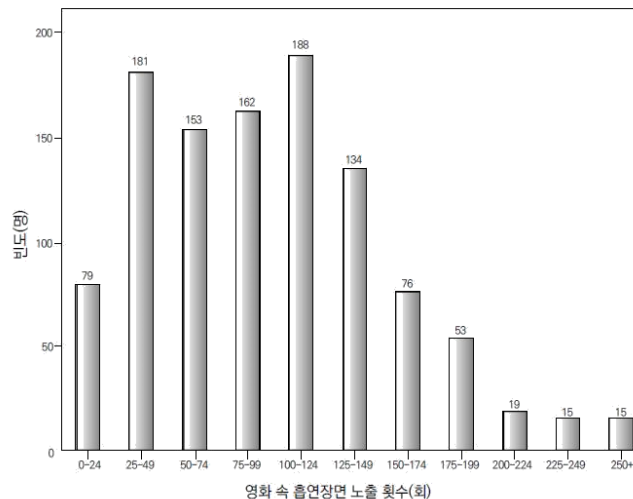
표 3.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범주		연구 대상자 (N=1,075)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18	57.5
	여성		457	42.5
거주지	서울		944	87.8
	강원도		25	2.3
	경상남도		50	4.7
	충청북도		56	5.2
학년	고등학교	1학년	46	4.3
		2학년	59	5.5
		3학년	7	0.6
	대학교	1학년	180	16.7
		2학년	237	22.1
		3학년	352	32.7
		4학년	194	18.1

2) 연구 대상자의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상태와의 관련성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횟수 빈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총 1,075명은 평균 97회 영화 속 흡연장면에 노출되었으며, 영화 속 흡연장면 25~149회에 노출된 연구대상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였다.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 상태와의 독립적인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중 현재 흡연군은 영화 속 흡연장면에 평균 137.4회(표준편차, ± 47.8), 비흡연군은 평균 74.4회(± 47.9)로 현재 흡연군에서 노출 정도가 1.8배 더 높았다($p < 0.001$) 고등학생 중 흡연군에서는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이 평균 152.2회(± 56.7), 비흡연군에서는 평균 56.6회(± 41.8)로 흡연군에서 2.7배 높았다($p < 0.001$) 대학생 역시 흡연군에서는 평균 136.4회(± 46.9)로 비흡연군 평균 76.9회(± 48.2) 보다 1.8배 높았다($p < 0.001$).

그림 1. 연구 대상자의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분포(n=1,075)



3) 연구 대상자의 흡연 관련 통제변수와 현재 흡연유무와의 관련성

성별에 따른 흡연유무를 보면 남학생 중 흡연하는 학생이 48.9%(302명)로 여학생 중 현재 흡연하는 학생, 19.3%(88명) 보다 2.5배 높았다($p < 0.001$). 대상자의 거주지에 따른 흡연유무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었다($p < 0.902$). 고등학생 중 흡연하는 학생은 23.2%(26명)로 대학생 중 현재 흡연하는 학생 37.8%(364명)보다 적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 0.002$).

과거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들 중 현재 흡연하는 학생은 4.7%(26명)였으나 과거 한 개피라도 흡연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현재 흡연하는 학생은 69.1%(364명)였다($p < 0.001$). 흡연하는 부모가 없는 학생 중 현재 흡연하는 학생은 29.3%(162명)이었으나, 부모가 흡연하는 학생 중 현재 흡연하는 학생은 42.9%(219명)였다($p < 0.001$). 친한 친구 중 현재 흡연하는 친구가 있는 학생 중 현재 흡연자는 39.9%(379명)인 반면, 흡연하는 친구가 전혀 없는 학생 중 현재 흡연자는 8.8%(11명)로 조사됐다($p < 0.001$).

친구의 흡연 권유에도 '결코 흡연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학생 중 현재 흡연자는 17.7%(143명)였으나, 친구의 흡연 권유에 "흡연하겠다"라고 응답한 학생 중 현재 흡연자는 92.2%(247명)로 나타났다($p < 0.001$). 학교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참여유무에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흡연하는 학생은 34.6% (315명)인데 반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중 현재 흡연하는 학생은 45.7%(75명)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 0.0062$). 담배제품 브랜드가 새겨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 중 현재 흡연자는 30.3%(280명)였으나, 해당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학생 중 현재 흡연자는 73.3%(110명)였다($p < 0.001$).

표 5. 연구 대상자의 흡연 관련 통제변수와 현재 흡연유무와의 관련성

변수	현재 비흡연자 (n=685)		현재 흡연자 (n=390)		유의확률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16	51.1	302	48.9	p<0.001
여성	369	80.7	88	19.3	
거주지					
서울	600	63.6	344	36.4	P<0.902
강원도	15	60.0	10	40.0	
경상남도	32	64.0	18	36.0	
충청북도	38	67.9	18	32.1	
학교					
고등학교	86	76.8	26	23.2	p=0.002
대학교	599	62.2	364	37.8	
과거 흡연 경험 유무					
없음	522	95.3	26	4.7	p<0.001
있음	163	30.9	364	69.1	
부모 흡연유무					
모두 비흡연	391	70.7	162	29.3	p<0.001
부, 모 중 흡연자 있음	291	57.1	219	42.9	
친구 흡연유무					
모두 비흡연	114	91.2	11	8.8	p<0.001
흡연자 있음	571	60.1	379	39.9	
친구 흡연권유에 대한 대응태도					
거부	664	82.3	143	17.7	p<0.001
수용	21	7.8	247	92.2	
학교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참여여부					
없음	89	54.3	75	45.7	p=0.0062
있음	596	65.4	315	34.6	
담배제품 브랜드가 새겨진 물품소지 유무					
없음	645	69.7	280	30.3	p<0.001
있음	40	26.7	110	73.3	

4)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현재 흡연유무에 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현재 흡연유무에 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를 연속형 변수가 아닌 노출 정도를 사분위수 범주(50회 이하, 51~92회, 93~132회, 133회 이상)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성별, 거주지, 학년, 과거 흡연유무, 부모 흡연유무, 친구 흡연유무, 친구 흡연권유에 대한 대응태도, 학교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참여여부, 그리고 담배제품 브랜드가 새겨진 물품 소지 유무를 통제한 상황에서 과거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현재 흡연상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이 가장 많았던 그룹(133~340회)이 노출이 가장 낮았던 그룹(50회 이하)에 비해 비차비(odds ratio: OR)가 38.7(95% 신뢰구간, 15.4~97.3)이었다. 그리고 51~92회 노출군, 93~132회 노출군 역시 노출이 가장 낮았던 그룹에 비해 OR이 각각 1.2(95% 신뢰구간, 0.4~3.1), 18.9(95% 신뢰구간, 7.6~47.5)로 나타났다.

4. 고찰

미국에서는 영화 속 흡연장면과 청소년 흡연 시작 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어느 국가들 보다 미국이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금지에 열정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 담배회사들의 내부기밀문건에서 영화를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 등급분류 기준' 제 7조(등급분류기준)에 따르면 영화에 삽입된 흡연 및 음주 장면 등이 흡연, 음주행위 자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영화는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이 영화등급 판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영화 속 흡연장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영화 속 흡연장면에 가장 많이 노출된 그룹(133~340회)이 가장 적게 노출된 그룹 (50회 이하)에 비해 현재 흡연할 가능성이 38.7배(95% 신뢰구간, 15.4-97.3)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결과(Distefan et al., 1999; Pechmann et al., 1999; Tickle et al., 2001; Dalton et al., 2003; Sargent et al., 2005)와 동일했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또 다른 선행연구는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되는 연예인들의 흡연이 청소년의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Yancey et al., 2011). Sargent(2005)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영화 속 흡연장면은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배우의 흡연 장면은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영화 및 비디오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재개정해서 실효성이 있는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영화 등급분류 기준을 보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담배제품 광고 및 판촉 금지 차원에서 영화 속 흡연장면 삽입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령에 맞지 않는 영화에 노출되는 것은 흡연문제뿐 아니라 폭력성과 선정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영화 관람에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들의 기억에 대한 오류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설문지에 영화 포스터와 주연배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화 내용을 더 잘 기억 해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향후 이러한 방법론상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최근 개봉 영화로 조사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등의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청소년 흡연행태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한 '전향적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금연정책 선진국들은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과 청소년 흡연행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고, 그 결과 영화 속 흡연장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연구결과 **청소년 시기에 영화 속 흡연장면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현재 흡연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했다.

향후 전향적 연구설계를 통해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연구결과는 **영화 속 흡연장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03. 오늘 학교는 (9월 2주차 ~ 9월 3주차)

이주의 보도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흡연예방 퍼포먼스 대회 실시, 상인천중·대건고 최우수상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016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퍼포먼스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흡연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흡연 예방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참가팀은 동부 소재 중학교 4개 팀, 고등학교 5개 팀이었다. 이들은 흡연 예방을 주제로 15분 내외의 공연을 완성해 선보였다. 그 결과 중학교 부문에서는 상인천중학교가 최우수상을, 정각중학교가 우수상을, 만수여중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고등학교 부문 최우수상은 대건고등학교가, 우수상은 인제고등학교가, 장려상은 박문여자고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대회에 참가한 상인천여중 교사는 "지난 6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퍼포먼스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여름방학 기간 기획, 연습, 발표까지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흡연 예방이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참여해 행복했고, 흡연예방교육이 학교 현장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청소년 흡연 문제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실로 찾아가는 흡연예방 캠페인 실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 산하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형)은 22일 해룡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캠페인과 흡연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김영형 교육장은 해룡중학교 3학년 각 교실에서 "청소년의 흡연이 두뇌활동과 사고 능력 저하 등 정서 발달에 해로우며 니코틴 중독이 성인에 비해 훨씬 심하다"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룡중 김명주 교장은 "교육장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교육의 효과가 배가되었으며 단 한명의 학생도 흡연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9월 2주차 ~ 9월 3주차

학 교	조기 금연 유도를 위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뮤지컬 'Clean Up' 공연, 담배와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실시
보건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증진교육 건강·힐링스쿨 실시, 합동 지도단속 및 계도, 흡연의 해로움 알기·담배 거절하기·금단증상 이겨내기 청소년 금연교실 실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흡연예방 퍼포먼스 대회, 청소년 생명존중 및 흡연·음주·약물오남용예방 캠페인, 찾아가는 흡연예방 캠페인 실시

일자	제목	주요 내용	보도처	비고
16-09-13	흡연예방 퍼포먼스 대회 상인천중·대건고 최우수상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퍼포먼스 대회 ✓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2016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퍼포먼스 대회'를 개최했다. ✓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흡연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흡연 예방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 참가팀은 동부 소재 중학교 4개 팀, 고등학교 5개 팀이었다. 이들은 흡연 예방을 주제로 15분 내외의 공연을 완성해 선보였다.	기호일보	교육지원청
16-09-19	부여군보건소, 건강·힐링스쿨 만들기	✓ 부여군보건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41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군은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담배와 음주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일보	보건소

16-09-20	밀양교육지원청,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캠페인	✓ 밀양교육지원청은 19일 Wee센터가 주관하고 관내 Wee클래스 담당자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밀양여중·밀성여중 정문, 밀양도서관, 담배·주류소매점을 중심으로 청소년 생명존중 및 흡연·음주·약물오남용예방 캠페인을 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	경남도민일보	교육지원청
16-09-20	태안고, 금연교육 실시	✓ 태안고가 1,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에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에게 흡연의 유해함을 알리고 조기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2학기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애리 금연전문교육사를 초청해 '독극물 칵테일' 담배의 원료와 청소년 건강에 끼치는 유해성을 동영상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태안고	심화형
16-09-22	제주 신창중,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 신창중학교는 지난 20일 제주시 서부보건소 금연상담사 김종희 강사를 초청,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실제 청소년 금연상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 강사가 도내 청소년 흡연 실태와 다양한 사례를 전달해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경고했다.	신창중	기본형

16-09-22	한국식품마이스터고, 뮤지컬과 함께 흡연예방 교육	✓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난 21일 뮤지컬과 함께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면서 하는 흡연예방교육의 한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Clean Up'을 공연했다. ✓ 이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힙합을 주 음악으로 해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기분을 '업'시키고 덩달아 흡연예방 분위기를 '업'시키기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식품마이 스터고	기본형
16-09-22	양주시보건소, 10월부터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경기 양주시 보건소가 지역 내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10월1일~12월16일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한다. ✓ 시에 따르면 이번 금연교실은 흡연의 해로움 알기, 담배 거절하기, 금단증상 이겨내기 등 총 3가지 주제로 사흘간 운영되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니코틴 의존도검사, 모형 체험, 스트레칭 강의, 한방요법, 금연서약, 개별 및 집단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일보	보건소

16-09-22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실로 찾아가는 흡연예방 캠페인 실시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 산하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형)은 22일 해룡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캠페인과 흡연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 김영형 교육장은 해룡중학교 3학년 각 교실에서 "청소년의 흡연이 두뇌활동과 사고 능력 저하 등 정서 발달에 해로우며 니코틴 중독이 성인에 비해 훨씬 심하다"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에듀뉴스	교육지원청
16-09-25	'평생금연' 재산초 흡연예방교육	✓ 봉화 재산초등학교는 지난 13일 봉화군 보건소와 연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진행했다. ✓ 이번 교육은 흡연 시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 아동·청소년들에게 담배와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내용은 담배의 유해성분, 흡연 관련 질병과 사망률, 친구 간 담배 거절법, 청소년은 왜 흡연을 피해야 할까요, 금연서약 등의 내용을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퀴즈와 정상폐와 흡연폐 모형 등을 이용한 체험 위주로 진행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재산초	기본형

03. 오늘 학교는 (9월 4주차 ~ 10월 1주차)

이주의 보도

제주도교육청, 게임·도박·흡연·음주 예방 기구 설치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4 일 오전 10 시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내에 '학생 중독예방 전담센터'를 설치,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음주, 도박 등 다중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학생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현재 '흡연·음주 및 온라인도박 중독 예방 공모전' 개최로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및 조기 발견·치료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오는 11 월에는 '학생용 중독관련 리플릿'을 제작·보급해 학생·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담기구 구성 및 센터 설치로 여러 부서간 협업 창구역할을 맡게 되며 Help-Line 의 24 시간 운영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조기 중독예방 및 중독 단계별 상담·치료·재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평생금연으로 건강생활 실천 도모



청주시보건소는 어린이 및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7 일 청주대성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건강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에 흡연 연령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흡연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조기에 흡연예방의 중요성 높이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 축제참가자를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호기심에 담배를 접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을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다양한 금연 정책 및 흡연예방 관련 홍보 캠페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월 4주차 ~ 10월 1주차

학 교

‘담배나라 소동’ 인형극 관람, 흡연예방교육 실시, 청소년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흡연가족을 통한 간접흡연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도전 금연벨' 대회

보건소

청소년흡연예방 연극 공연,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 골든벨 개최, 금연 및 흡연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 캠페인 실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 흡연·음주 및 불법도박 중독예방 공모전, 게임·도박·흡연·음주 예방 기구 설치,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단 운영

일자	제목	주요 내용	보도처	비고
16-09-26	천안시동남구보건소, 청소년흡연예방 연극 공연	 ✓ 천안시동남구보건소는 최근 신부문화공원에서 금연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와 연계해 '청소년흡연예방'이라는 주제의 연극공연을 진행했다.	금강일보	보건소
16-09-29	경주 나산초, '담배나라 소동' 인형극 관람	✓ 경주 나산초는 지난 22일 강당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으로 '담배나라 소동' 인형극을 관람했다. 이번 인형극은 1~4학년 학생 151명, 나산초 병설유치원 원아 24명, 총 175명이 관람 했다. ✓ '담배나라 소동' 인형극은 학생들에게 담배 속에 들어있는 유해성분과 그 유해성분이 사람의 몸에 끼치는 폐해와 심각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고 평생금연 다짐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에게도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나산초	기본형

16-09-29	제주도교육청, 청소년 흡연·음주 및 불법도박 중독예방 공모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 내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음주 및 온라인 불법도박 중독 예방 공모전'을 오는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학교에서 교사의 적절한 지도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학교 흡연·음주 및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공모내용은 각급 학교에서 추진했던 우수사례와 가족의 금연(금주) 성공 및 불법 사이버도박 중독 탈출 성공 경험 등이다. 공모분야는 포스터, 웹툰, UCC 극복수기, 우수사례(보고서) 등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헤드라인제주	교육청
16-09-29	경산 압량초, '흡연예방교육' 실시	✓ 경북 경산 압량초등학교는 27일 강당(민들레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경산시 보건소 금연 담당자와 상호협력,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담배의 성분과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질병 등을 다양한 그림 자료와 동영상으로 보여줬다.	압량초	기본형
16-09-29	부산 서구보건소,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 부산 서구보건소는 청소년들의 신규 흡연자 발생 차단과 흡연·음주율 감소를 위해 지난 26일 서여자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뉴스	보건소

16-10-04	제주도교육청, 게임·도박·흡연·음주 예방 기구 설치	✓ 제주도교육청이 게임·도박·흡연·음주 등 예방을 위해 '학생 중독예방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 센터 설치에 따라 도교육청은 긴급전화를 24시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 등이 도움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축제 현장에서 중독관련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학부모 매뉴얼 자료를 개발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청소년 열린문화공간에 중독 예방 체험관을 운영하고, 도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음주·흡연 공모전을 추진한다.	제주도민일보	교육청
16-10-05	경산 정평초, 도전 금연벨 대회 실시	✓ 경북 경산 정평초등학교는 학년생들에게 청소년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흡연을 경험하거나 가정내 흡연가족을 통한 간접흡연의 노출을 줄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전 금연벨' 대회를 실시했다. ✓ 흡연자가 1년간 피운 타르의 양, 정상인 폐와 흡연자의 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혈관, 간접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담배 한 개비 속의 유해물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담배가 미치는 영향 등 흡연예방 캠페인이 퀴즈를 통해 실시됐다.	정평초	기본형

16-10-05	광영초 "금연 골든벨을 울려라~"	 ✓ 광영초등학교는 지난 9월 29일, 광영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키움플러스 개발원' 최민경 원장을 초빙해 '금연 골든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 금연 골든벨은 기존의 교육 틀에서 벗어나 눈높이 참여 교육인 '나무 토크쇼'를 시작으로 '○,×퀴즈', '금연 골든벨'로 진행됐다.	광영초	심화형
16-10-05	칠곡군보건소,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 골든벨 개최	✓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30일 약목중학교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중요성을 알려 흡연예방 및 흡연을 감소에 기여하고자 "도전! 금연 골든벨을 울려라" 행사를 개최했다. ✓ 1차 예선에서 O, X 퀴즈방식으로 30명을 선발한 후 금연 골든벨을 진행한다 ✓ 특히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인체에 끼치는 담배의 피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했다.	경상매일신문	보건소
16-10-07	청도교육지원청,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단 운영	✓ 청도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금연지도원, 걷기운동지도자, 청도군청 위생감시원, 청도교육지원청 관계자 총 14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 홍보단은 4개팀(3인 1팀)으로 나눠 지난 5~26일까지 청도군 담배 판매업 276개소를 대상으로 1차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 홍보단은 담배 판매 업소를 방문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영업장에 부착하게 하고, 신분증을 통한 청소년 연령 확인과 청소년에게 절대 담배를 팔지 말 것을 업주에게 당부했다.	경북도민일보	교육지원청

16-10-07	청주시, 평생금연으로 건강생활 실천 도모	✓ 청주시보건소는 어린이 및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7일 청주대성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건강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최근에 흡연 연령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흡연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조기에 흡연예방의 중요성 높이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 축제참가자를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아주경제	보건소
-----------------	---------------------------------------	---	-------------	------------

04. 현장소식

제주동중학교 홍주연 선생님

1. 소속 학교 소개 및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동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홍주연입니다. 제주도는 어느 곳이나 공기가 좋고 경치가 아름답지만, 제주동중학교는 인근에 사라봉 및 검은모래로 유명한 삼양해수욕장이 위치해있는 있고 북쪽으로는 바다, 남쪽으로는 한라산이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5, 6년 전부터 이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2014년도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할 때만 해도 학생수 1,000명이 넘는 거대 학교였지만 작년에 인근에 남녕공학 중학교가 생기면서 현재는 학생수 700명의 제주시에 위치한 중학교 중에서는 아담한 규모의 학교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고향으로 와서 임용고시를 보고 보건교사가 되었고, 올해로 임용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며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돌보며 질병이 생기기 전 자기건강을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건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의 자기건강관리능력 함양을 목표로 꾸준히 교실 수업(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 교육은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흡연 및 음주예방, 성교육을 1,2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흡연예방교육 심화형 학교를 운영하며 교육뿐 아니라 사제동행 평생금연다짐 걷기대회, 금연교실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면 학생 흡연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제동행 평생금연다짐 걷기대회



▲ 금연 PET병 실험 장면

2. 학교의 특색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주동중학교는 1982년에 개교하여 현재 23학급, 700여명의 학생, 60여 명의 선생님과 구성되어 있고, 성실, 창조, 교훈아래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학교**로 지정되어 환경탐사, 중e병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하는 우리바다 사수대를 운영하고 있고,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력 및 인문학 소양 함양을 위해 대학생 학습·정서 지원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아트 프로그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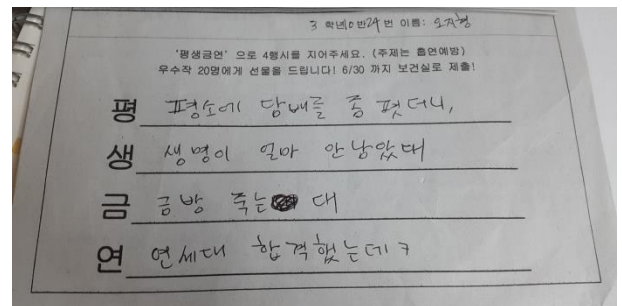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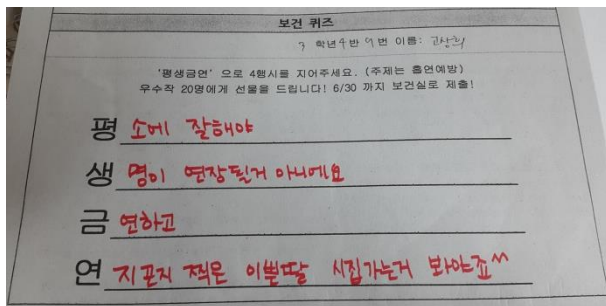
수학교육 선도학교로서 체험 탐구중심의 수학동아리를 운영하고 수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력신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적 감성을 키울수 있는 뮤지컬반을 운영하고 공연도 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 발굴에도 힘쓰며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3. 지금껏 운영해오신 다양한 흡연예방사업들 중,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기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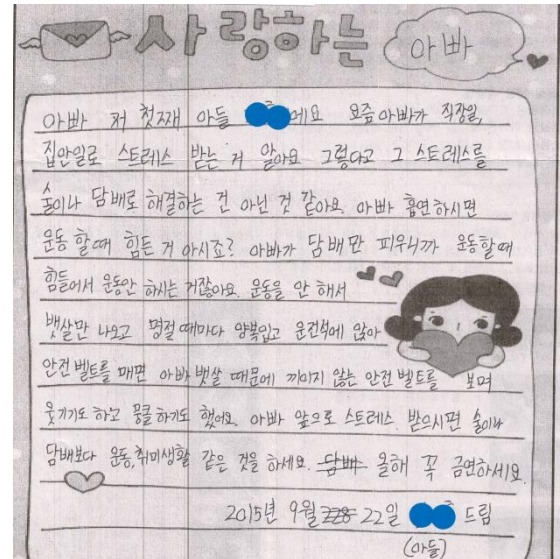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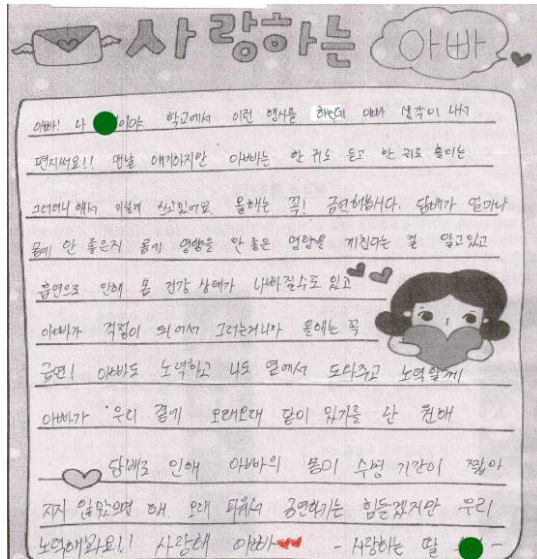
학생들은 대다수가 비흡연자인 만큼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공감합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다기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당연히 흡연예방교육**입니다. 흡연예방교육에 있어서 단순히 '흡연하면 질병에 걸리고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도 낭비다'라고 하기 보다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기역할을 잘 하기 위해 평생금연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담배회사 마케팅 전략 및 거절기술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평생금연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위해 보건소식지를 통한 퀴즈나 **흡연예방 4컷 만화, 금연을 권유하는 편지쓰기, 평생금연으로 4행시 짓기, 슬로건 만들기 등의 공모전**을 하고 상품을 주었더니 학생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금연은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들을 통해서 저 또한 배우게 되었고, 복도에 전시하여 금연 홍보의 효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미술교과와 연계하여 미술시간에 **흡연예방티셔츠 만들기**를 하여 수행평가를 하였는데, 학생들이 금연의 중요성, 흡연의 폐해 등을 스스로 생각하며 작품으로 표현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티셔츠를 체육 시간 등에 입음으로써 금연홍보의 효과도 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흡연예방 4컷 만화 그리기



▲ 평생금연 4행시



▲ 금연권유 편지쓰기

4.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이라는 학교의 본연의 역할을 볼 때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예방교육이 필수**라고 봅니다. 일회성이 아닌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금연**'이 당연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흡연예방교육**을 받고 가족들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라고 외치고 **울동** 하는 것을 보며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경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교육풍토 속에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예산이 줄어들어도 흡연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관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최신의 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겪으신 어려움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셨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화형을 운영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성과도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것을 측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다른 많은 업무들과 병행해야 하는 것과 다른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교장, 교감선생님과 많은 동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어 학교흡연예방사업 심화형 운영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올해는 작년에 쌓은 노하우로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흡연하는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이 **학생들의 문제가 '흡연' 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에서 '**흡연**'은 그나마 가장 가벼운 문제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면서 보니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금연 해야겠다**'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상담부서와 연계한 좀 더 포괄적인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흡연예방티셔츠 만들기



▲ 흡연예방 에코백 만들기



▲ 흡연예방 포스터 전시



▲ 흡연예방 4컷 만화 게시모습

6. 마지막으로 전국 학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1시간에 3명꼴로 마약에 중독된 아기가 태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사시나무 떨 듯 몸을 떠는 신생아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며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지기도 했습니다. **흡연은 다른 불법 약물로 넘어가는 관문약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의 문제를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의 흡연예방을 위해 교육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물 담배, 씹는 담배, 캡슐 담배, 10월부터 판매중지가 된 비타스틱 등 흡연행태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이 새로 생겨나는 만큼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자는 캐치프레이즈로 교육감님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말은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 지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흡연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방황하고 흔들리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담배 끊어라 잔소리만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며 **학생들의 '문제'만 보지 말고 따뜻한 눈빛 한번 말 한번 건네야겠다고 다짐**하며 어느 연수에서 들었던 시 한 구절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중)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오는 학생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새삼 크게 다가옵니다.

05. 학교 알리미

공지사항

[학교흡연예방사업] 금연상담전문가과정 통합과정 온라인 연수 11월 신청안내

- 1) **내용** : 2016년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 과정을 운영하므로, 연수 희망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참여(학점 인정 안됨)
- 2) **대상자** : 학교(기본형/심화형),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 기타 관계자
- 3) **신청기간** : 11.1.(화) ~ 11.15.(화)
- 4) **학습기간** : 11.1.(화) ~ 12.31.(토) 중 참여 희망하는 기간
 - 26기 : 11.1(화) ~ 11.15.(화)
 - 27기 : 11.16.(수) ~ 11.30.(수)
 - 28기 : 12.1.(목) ~ 12.15.(목)
 - 29기 : 12.16.(금) ~ 12.31.(토)
- 5) **신청방법** : 금연전문가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ms.khealth.or.kr>)에서 개별 회원가입 후 해당 과정 신청(신청과 동시에 수강 가능)

※ 7월 이전 : 기본, 심화, 보수과정 → 7월 이후 : **통합과정**으로 개편

※ 기수 별 최대 수강인원 : **250명** (인원 제한)

사업 동정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 대상 금연상담전문가 과정 직무연수(대면) 운영 완료

1) 목적

- 금연상담전문가 과정은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자의 금연상담 지식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온라인 과정을 수료한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기반 금연상담실습 및 END, Jr. END 활용 방안에 대한 심화 교육(대면 21시간)을 운영하였음

2) 기간 및 장소

◆ 장소

-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회(6월, 8월(2), 9월), 부산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1회(7월), 전북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 1회(8월)

◆ 연수 기간 : 2016. 6. 15. ~ 9. 30.(기수 당 21시간, 총 6기)

- 2기 (2016.6.15.~17.)

- 3기 (2016.7.20.~22.)

- 4기 (2016.8.10.~12.)

- 6기 (2016.8.17.~19.)

- 7기 (2016.8.24.~26.)

- 9기 (2016.9.28.~30.)

3. 연수이수인원 : 266명(48명/47명/45명/40명/43명/43명)

- 교원 학점 인정 완료(울산시교육청 협조)



▲ 금연상담전문가 직무연수 과정

5분 건강대화법 - 담배와 건강 바로 알기

제작 : 보건복지부

◆ 담배를 피우면 키가 안 자라요.

-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0.7cm 작게 성장

2009년도에 조사된 전국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흡연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첫 흡연시기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입학 이전에 첫 흡연을 한 학생은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의 12.4%, 고등학교 2학년의 8.6%이며 여학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의 8.9%, 고등학교 2학년의 5.2%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수년 동안 소폭으로 감소한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린 나이부터 첫 흡연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아직까지 청소년 흡연으로 인하여 신체 성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 시기의 흡연의 폐해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2008년에 청소년기 흡연이 키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2~13세의 451명의 남자와 478명의 여성을 2.5년 관찰하였는데 **한 달에 100개비 이상을 피우는 청소년 남자에서 키의 성장이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0.7cm 작게 성장하였다.** 여성에게서는 키에 있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 흡연자의 자녀들, 장래에 흡연자 될 가능성 높아

흡연이 키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유로는 흡연할 때 몸에 들어가는 니코틴이 성장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2004년 의학 전문지 대사(Metabolism)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는 니코틴으로 인해서 여성 흡연자에게서도 성장호르몬 수치가 감소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체질량지수와 키의 감소 효과가 유의하게 관찰된 이유로는 청소년 흡연의 시작 시기가 주로 10대 초반인데, 이 연령대의 소녀들은 사춘기 성장이 거의 완료될 시기인 반면에 소년들은 이제 시작될 시기이기 때문에, 남성에게서 감소효과가 두드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폐성장은 소아기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초기 성인기에 완성되고 후에 노화, 흡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감소되므로, 부모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 노출이나 직접적인 흡연은 폐성장을 저해하고 폐기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흡연자의 자녀들은 장래에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폐기능 장애에 직면할 위험도 높다.** 이 외에도 소아시기에 간접흡연도 소아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거실은 물론 베란다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어야 하고, 학교도 건물 전체가 금연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소아의 간접흡연 노출은 특히 호흡기 질환과 사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 및 주변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2007년도에 발표된 A report of Surgeon general report에 따르면, 흡연에 간접 노출된 영아들은 영아 급사 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의 높은 위험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2세 미만의 영아 및 소아의 경우 폐렴 및 세기관지염과 같은 하부 급성 호흡기 감염에 있어 충분한 위험 인자가 되고, 모성 흡연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부모의 흡연은 급성 및 재발성 중이염 및 만성 중막 삼출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편도선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부모의 흡연은 학동기 아동에게서 기침, 가래, 숨가쁨 등의 호흡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천식의 원인도 될 수 있다.

◆ 담배는 암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는 압도적으로 암이 차지한다. 흡연은 모든 암의 사망원인 중 약 30%를 차지한다고 밝혀져 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려면 가장 먼저 금연을 해야 한다. 담배연기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 생기는 암인 구강암, 설암, 식도암, 기관지암, 폐암의 경우에는 주요 원인이다. 담배연기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기관의 암인 자궁경부암,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위암, 혈액암의 위험은 흡연으로 인하여 1.5~3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폐암 -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비흡연자와 비교할 때 남자에서 22배나 높고, 여자에서 12배나 높다. 또한 과거의 흡연기간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1~9년 피운 흡연자는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1.41배 높았으며 10~20년 피운 흡연자는 3.47배, 21~39년 핀 흡연자는 8.34배, 40년 이상 핀 흡연자는 10.05배 높다.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결과도 모든 종류의 폐암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소세포암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걸릴 확률이 21.7배였으며 편평세포암은 11.7배, 선암은 2.1배였다.

구강암 - 남성에서는 흡연이 구강암 원인의 92%, 여성에서는 61%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2~18.1배 높다.

식도암 - 흡연은 식도암의 주요 요인이다. 남성에서 흡연은 식도암의 원인의 78%, 여성에서는 75%를 차지하고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1.7~6.4배 높다. 알콜 섭취는 식도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담배를 피우는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음주량이 많을 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췌장암 - 흡연은 췌장암과 관련이 있다. 남성에서 흡연은 췌장암 원인의 29%, 여성에서 34%를 차지하고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1.0~5.4 배 높았다. 췌장암은 경과가 매우 나쁜 암으로 5년 안에 93%가 사망하는 무서운 암이다.

방광암 - 남성에서는 흡연이 방광암 원인의 47%, 여성에서는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방광암 사망률이 4배 높았다.

자궁경부암 -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자궁암 발생확률이 1~5배 높았다.

유방암 - 흡연자에서의 유방암 발병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0.6~4.6배로 평가되었는데, 아직 명백한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간접흡연과 암 - 간접흡연과 암에 대한 연구에서는 흡연하지 않는 부인이 흡연하는 남편과 사는 경우에 흡연하지 않는 남편과 살 때와 비교해서 약 1.42배 폐암 발생률이 높아졌다.

흡연하지 않는 여성이 흡연하는 남편과 살 경우 흡연하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경우에 비해 남편이 하루 14개비를 피우면 폐암 발생률이 1.42배 높아졌고, 15~19개비 흡연하면 1.58배, 그리고 20개비 이상에서는 1.92배 높았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흡연할 경우 폐암 발생률이 약 1.9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남편이 30년 이상 흡연을 하였을 때 아내의 폐암 발생률은 3배 이상 높아졌다.

<출처> 5분 건강대화법

http://info.khealth.or.kr/_RCHKIND=TITL_infoboard/detaE&SORT_KIND=ail.do?BOARD_S=&FTYPE=&subSEQ=152&LCL=bSel=#.VfKyoc8=&SCL=&SEARC8VimQ_

06. 흡연예방 교육자료

[5분 건강 토크] 겉과 속이 다른 캡슐 담배의 두 얼굴



커피향, 오렌지향, 박하향..

청소년을 유혹하기 쉽고 니코틴 중독성을 높일 수 있는

캡슐담배,

캡슐에 들은 물질이 향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가향담배**라고도 불립니다.

외국은 캡슐 담배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감질나는 캡슐의 향기 물질이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조장하고 흡연 중독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캡슐담배에 대한 규제를 위한 제도가 시급해보입니다.

<출처>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d4fgpD9xud4>

금연보조제 올바른 사용법

1. 금연보조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악영향

금연보조제는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는 데 도움이 되나, 혼합사용 등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시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금연보조제 용법

- 금연껌: 30분 정도 천천히 씹는다
- 트로키제: 삼키지 않도록 주의
- 패치: 하루 1매, 매일 같은 시간에, 털이 없는 부위에 부착
-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한번에 여러 종류, 여러 개 사용 삼갈 것

3. 금연보조제 부작용

이하 증상 나타날 시 사용 중지

- 구역, 가래, 어지럼증, 불안, 갈증, 집중력 저하



<출처>서울성모병원 카드뉴스 <http://naver.me/FNPEy9Og>